

“성접대 의혹” 이준석, 출석 제대로 하면 최대한 빨리 종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줄리설’ 정통방법 위반 수사 계속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며, 예정대로 출석이 이뤄진다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출석이 제대로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안으로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와의 조율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능한 조기에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질문에도 “일단 출석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 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는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에 대한 수차례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폭로 당사자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

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대선 기간 일명 ‘줄리설’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6건,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추석 연휴 끝나고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추석 연휴기간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있다.

낙동강 정수 수돗물서 조류 독소?

환경부 “검출 안돼”

낙동강 유역내 정수장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조류독소)이 검출됐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달 말 실시한 추가 분석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환경부는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9월 환경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조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9일 대구와 부산, 경남 등 10개 정수장 수돗물을 추가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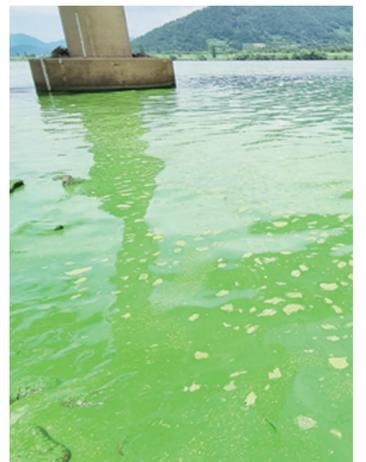
시민단체에서 활용한 효소 면역측정법(ELISA)과 환경부 고시에 의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LC-MS/MS) 등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돗물 분석 결과뿐 아니라 원수 분석결과도 공개했다. 이는 환경부가 수돗물 분석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3~24일 LC-MS/MS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한 결과 10곳 정수장 원수 모두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0.059μg/L~1.551μg/L) 됐다.

ELISA법의 경우 원수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표시한계(0.3μg/L) 이상으로 검출된 정수장은 4곳이다. ▲마산칠서 0.505μg/L ▲삼계 0.345μg/L ▲덕산 1.107μg/L ▲화명 0.806μg/L 등이다.

지난달 29일의 경우 LC-MS/MS법으로 분석한 결과 10곳 정수장 원수 모두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ELISA법의 경우 ▲반송 0.398μg/L ▲삼계 0.609μg/L ▲덕산 0.591μg/L ▲화명 1.275μg/L 등 정수장 4곳에서 검출됐다.



원수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별도의 먹은물 수질감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주장과, 환경부의 반박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환경단체와 제3의 기관을 포함한 합동 조사단을 꾸려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태풍 등으로 녹조 상황이 해소된 상황에서 누릇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칠서와 물금매리 지점만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기에 환경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때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대응하는 과정에서 녹조 발생 때가 지나치게 됐지만, 시험 방법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추석 연휴 첫날 만취해 자택에 불 지른 60대 구속

가족간 갈등에 화집 범행 추정

추석 연휴 첫날 만취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0)씨를 구속했다

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1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을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 거실에서 쌓아둔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며, A씨는 손·발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술을 마시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자주 다투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성=김수권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